

2002 세계韓民族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 盛了

미국·유럽·CIS 등 국내외 한민족과학기술자 4천5백여명 참가



▲ 7월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02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 개회식 장면

지구촌 한민족과학기술자들의 한마당 큰 잔치인 2002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 종합학술대회가 7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6일간의 공식 일정을 모두 끝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관련 국내 학회와 해외 한국인 과학기술자 협회 공동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종합학술대회는 세계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포 과학기술자 2백30여명과 국내 과학기술자 4천여명이 참가하여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기술정보 교환을 통해 우리 민족의 과학수준과 기술 저력을 국내외에 널리 과시하는 기회가 됐다.

참가국 별로는 미국·캐나다에서 1백64명이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일본에서 26명, 독일·프랑스·영국에서 17명,

중국·독립국가연합(CIS)·호주 등에서 29명이 참가했다.

최신 연구논문 3백50여편 발표

이번 한민족 학술제전은 7월 8일 국외 참가자들의 등록을 시작으로, 9일의 개회식에 이어 특별강연과 학술발표에 들어가 11일까지 3일간 △Bio-Technology △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 Nano-Technology △ Electric & Electronic Materials △ Environment and Energy △ Machinery, Manufacturing △ Space Science and Technology △ Civil,

Architectural and Construction Technology △ Basic Science and Engineering △ Polymer Science and Engineering △ Optical and Optoelectronic Technology 등 11개 분야에서 총 3백50여편의 최신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개회식에 과학기술계인사 다수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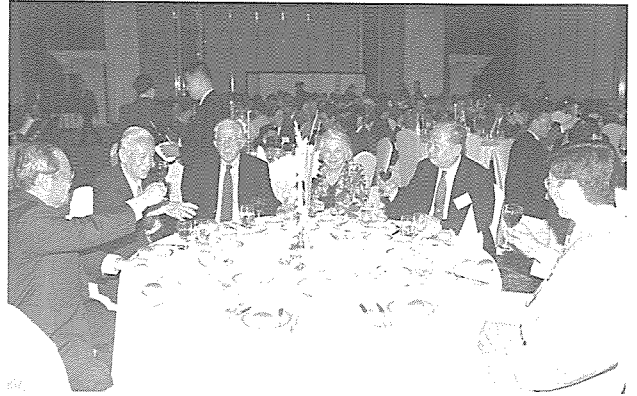
7월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金始中 과총 회장을 비롯한 과학기술계 인사 4백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회식은 과총 회장의 개회사와 과학기술부 장관의 격려사에 이어 재미과협 회장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회식에서 과총 회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창달에 힘쓰고 계신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특히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이라는 조국의 여망에 부응하여 세계 14개국에서 모국



▲ 3일간 실시된 학술발표에선 11개 분야에서 3백50여편의 최신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 참가자들을 위한 환영리셉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金始中 대회장



▲ CEO포럼이 열린 'BANQUET디너' 모습

을 찾아주신 해외동포 과학자 여러분과 금년부터 실시하는 'Young Generation Forum'에 참석한 젊은 과학도에게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고 "오늘 열리는 이 종합학술대회는 지난 74년 7월, 국내의 한민족과학자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새로운 과학기술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로 출발하여 그 후 28년 동안 아홉차례의 종합학술대회가 개최되었고, 그 결과는 국내 과학기술계의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우리의 과학기술 현실에는 과학기술인들을 홀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 국가 과학기술 진흥을 위협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아직도 짙게 드리워져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6월의 FIFA 월드컵 열풍은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과시하여 '우리 민족은 하나'이며 '무엇이든 해 낼 수 있다'는 우리의 진솔한 참 모습을 되찾게 해 준 계기로서 우리 과학기술인들도 우리의 숙원인 '과학기술 선진국'에 뜻을 모으고 열과 성을 다한다면 그 목표 또한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7월 9일, 10일 오전에는 채영복 과학기술부 장관/ 김명자 환경부 장관/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과 해외에서 초청된 John H. Gibbons박사(전 미국 대통령 과학보좌관)/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Nathan Rosenberg박사와 William F. Miller박사의 특별 강연을 가졌다.

또한 7월 9일 저녁 김시중 대회장이 주최한 리셉션에는 이한동 국무총리가 임석하여 참가한 국내외 과학기술자들을 격려해 주었으며, 7월 10일 저녁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가진 'BANQUET 디너'에는 LG화학기술연구원 여종기 원장 / 삼성전자 이윤우 사장/ KTF 이용경 사장/ 현대자동차 김동진 사장/ 광주광역시 박광태

시장이 참가한 'CEO포럼'도 곁들여 열렸다.

해외 과학인력 유치 상담도

한편 이번 대회기간 동안 「Information Center」가 설치돼 해외고급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들의 유치창구 역할을 수행했다. 이 센터에는 한국정보통신대학교, 한국과학기술정보원, 삼성종합기술원, LG그룹, 한국광산업진흥회, 광주광역시 등 11개 기관이 참여해 관련분야의 교포 과학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자사 홍보와 취업 알선 및 공동연구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상담을 벌였다. 이밖에도 해외동포 과학기술자 동반가족을 위한 가족관광도 함께 진행되었다.



◀ 가족관광

세계韓民族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 개최

「해외한민족과학기술자 DB」 협의, 공동선언문 채택도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민족 과학기술자들의 협의체인 「세계한민족 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는 7월 12~13일 양일간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2002년도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미국, 러시아 등 세계 11개국 각 과학협 현황 및 사업실적과 최신 과학기술 동향, 해외한국과학기술자 DB완성 및 활용, 해외 고급 과학두뇌초빙활용(Brain Pool)제도 활성화 방안 및 남북 과학기술교류 증진을 위한 재외과학협 역할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각 재외과학협별 활동보고에 이어 과학기술의 세계화를 통하여 복지사회를 건설하고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조국의 장래와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는 4개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

세계 11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과학기술자들을 대표하는 우리들은 2002년 7월 13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2002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에서 국가의 미래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한민족 과학기술자들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들은 과학기술력이 경제 발전의 동력이며 국가경쟁력의 근간임을 깊이 인식하고 국내외 과학기술인력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모국의 과학기술 진흥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 우리들은 해외 한국인 과학기술자협회의 발전이 모국의 발전에 크게 유익함을 인식하고, 과총은 해외한국인과학협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해외과학협은 과총의 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참여할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들은 국내외 차기세대간의 유대강화가 미래 과학기술발전에 반드시 필요함을 인식하고 젊은 세대 광장(Young Generation Forum)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발전에 상호 협조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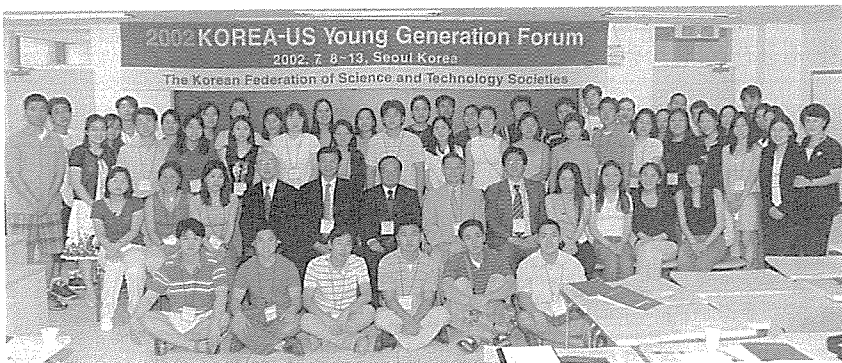
1. 우리들은 남북과학기술협력이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참여할 것을 다짐한다.

2002년 7월 13일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의장 김시중 외 해외과학회장 일동

제1회 Young Generation Forum 개최

韓·美 청년과학도 휴먼네트워크 구축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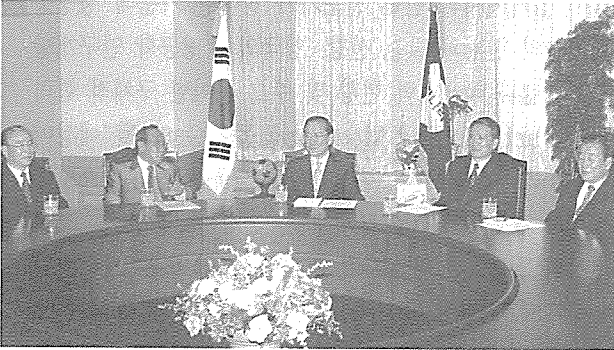
과총은 이번 학술대회 기간 중인 7월 8일부터 13일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과 서울대 국제지역원에

서 「제1회 Young Generation Forum」도 개최했다. 재외동포 청년과학기술자들과 국내 전문가들간 21세기

과학기술 비전에 대한 상호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해외동포 전문가들 간에 네트워킹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첨단 과학기술의 상호 교류에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자 처음으로 마련한 이번 포럼에는 과학기술관련 전공 학부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을 소지한 1.5세대 이후 재미동포 청년과학기술자 39명과 국내 청년과학기술자 29명이 참여하여 ‘한·미간 젊은 과학도 네트워크 구축 방안’과 ‘21세기의 미래 유망프론티어 분야의 선정’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2박3일의 대학·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견학회도 가졌다.

과학기술계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

- 한나라당,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김시중회장은 2002년 7월 4일 오전 10시 한나라당 당사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를 만나 '우리나라 과학기술 도약을 위한 과학기술계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질의서와 과학기술 위기선언문'을 전달했다. 정책질의서를 전달한 이 자리에는 과총 임용규 부회장, 민석기 부회장 등 임원진 9명이 배석했다.

또한 7월 8일 오후 3시에는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민주당 당사로 찾아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전달하였다. 이 자리에 민주당에서는 김영환 국회의원(전 과기부장관)이 배석하였으며, 과총에서는 박택규 과총 부회장의 8명의 회장단이 배석했다.

과총에서는 각 당으로부터 정책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는데로 정리하여 각 당 대선후보자 및 정책담당자를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이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의지를 비교 검토한 자료를 회원 단체 및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다. 각 당 대통령후보에게 질의한 '과학기술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서' 대질문 9개항(30개 세부항목 생략)은 우측과 같다. 57

【질문 1】

과학기술계는 과학기술을 지원·육성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강력한 실천의지와 노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귀당의 기본 정책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질문 2】

우리나라 총연구개발투자에 있어 정부의 부담율은 약 25%로 주요 선진국의 30~40%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과학기술예산의 획기적 증대와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귀당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문 3】

현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있는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한 귀당의 입장과 이를 치유할 근본적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문 4】

모방이 아닌 창조력을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기초과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육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당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질문 5】

IMF 사태 이후 과학기술자의 사기저하는 매우 심각합니다. 과학기술자의 사기양양과 사회적 위상제고를 위한 귀당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문 6】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대우의 미흡은 정부부처 인력구성에 있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중견공무원 중에서 이공계 출신은 17%에 불과하여 50% 이상인 주요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 대부분의 비교 대상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귀당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문 7】

정부출연연구소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미래첨단기술의 산실(産室)이며, 만여명의 고급두뇌와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연연구소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귀당의 정책방안은 무엇입니까?

【질문 8】

세계화·지방화·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귀당은 정책공약으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갖고 있습니까?

【질문 9】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우리의 과학기술계 또한 많은 것을 준비하고 또한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귀당의 정책방안은 무엇입니까?